



독서지도안

초등

지구촌 사회 학교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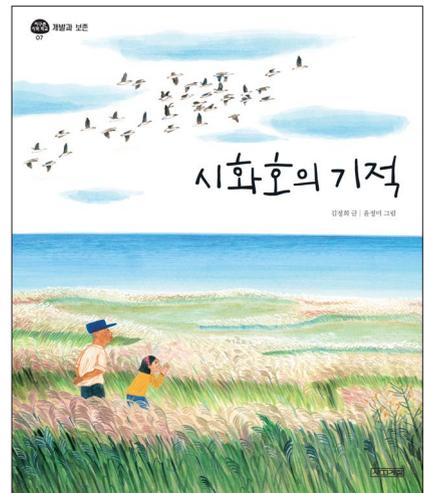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 (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화호의 기적

김정희 글 | 윤정미 그림



주제: 국토 개발과 환경 보호, 민주 시민
관련 학년: 3~6학년 환경 교육



바다와 갯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화호 이야기

“뭐? 바다를 막는다고?” 어느 날 어섬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방조제를 쌓아서 바다를 막고, 갯벌을 육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섬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방조제가 완성되자 곧 물이 오염되어 갔어요. 그렇게 탄생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시화호를 살립니다! 바다를 살립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으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다시 맑아지고 갯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갯벌 생물들과 철새들도 돌아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함께 시화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어 봐요.

■ 들어가며

이 책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해묵은 논쟁, 그렇지만 여전히 4대강을 비롯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넓은 땅과 엄청난 기술을 자랑했지만 결국 누구도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버린 시화호가 어떤 과정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특히 성공한 개발처럼 보였지만 절대 성공한 것이 아님을 알기까지 큰 희생과 비용이 뒤따랐음을 기억한다.

■ 학습 목표

시화호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터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 특히 갯벌이 죽었다가 다시 겨우 살아나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이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생태 감수성과 개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기회를 갖는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차시
책 읽기	바다를 육지로! 정부 관리와 공청회 하기 찬반 주민 토론허기	2차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다!	2차시
	‘시화호의 기적’ 홍보 포스터 만들기	2차시
책 읽은 후	군자만 갯벌에서 시화호의 기적까지 몸으로 나타내기	1차시
	‘간척 사업’ 함부로 하지 말아 주세요’ 편지 쓰기	1차시



책 읽기 전

■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책의 면지를 보면 앞쪽에는 시화호가 생기기 이전 지도가 있고 뒤쪽에는 시화호가 생긴 후 현재의 지도가 있다. 두 지도를 복사하여 모둠에게 나눠주어 같은 곳을 알려 준다. 우리나라 현재 지도에서 시화호의 위치도 확인한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도를 보고 찾는다. 달라진 곳에 동그라미를 친다.

- 무슨 일 때문에 바다와 땅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발표한다.
- 시화호는 어디인지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
- 왜 군자만 갯벌이 사라진 곳에 생긴 호수의 이름을 시화호라고 했을까 맞춰 보자. 지도를 잘 보면 시화호 이름의 비밀을 찾을 수 있다.

책 읽기



■ 바다를 육지로! 정부 관리와 공청회 하기

교사가 나와서 정부 관리처럼 알린다. “이번에 정부에서 갯벌을 막아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큰 공사이니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의견도 들을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 역을 맡은 학생들이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 본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는 정부 입장으로 대답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의 갯벌이 있는 지도에 방조제가 건설되는 선을 그어 가며 보여 주면 더 쉽다.

■ 찬반 주민 토론하기

- 이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끼리 토론하여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다.
-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를 들어 서로 주장을 펼친다.

■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다!

29쪽까지 읽고 교사가 질문을 한다.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시화호는 더 썩어갈 것임을 알게 된 주민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명 운동, 집회 열기, 언론

에 알리기 등의 방법을 발표한다. 그중 서명 운동으로 정했다면 서명 용지를 만들고 집회를 하기로 했으면 주장을 담은 피켓을 만든다. 이때 교사는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알린 다른 사안을 참고 자료로 보여 준다.

■ '시화호의 기적' 홍보 포스터 만들기

-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화호의 오염 원인과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는다.
- 시화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시화호 주변의 변화를 다시 확인한다. 교사는 시장인 듯 나타나서 학생들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화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화호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필요합니다. 시화호의 기적을 알려주세요.”
- 모둠별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 발표한다.



책 읽은 후

■ 군자만 갯벌에서 시화호의 기적까지 몸으로 나타내기

- 갯벌이 시화호로 메워지고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과정을 몸으로 나타내 보자.
 - 학생 자신이 갯벌이라 생각하고 교사가 외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몸을 변화시켜 본다.
- 어섬은 바지락, 갯지렁이, 굴, 망둥어, 꽃게가 사는 갯벌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갯벌과 함께 살았어요.
- 어느 날 커다란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바다에 바위며 돌을 퍼부어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 바다와 갯벌은 마른 땅으로 변하고 방조제 안으로 커다란 시화호가 생겼습니다.
- 시화호는 썩어갑니다. 소금 바람이 불고 물고기는 죽어 가고 새들은 사라졌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 드디어 방조제가 열렸습니다. 물이 다시 흐릅니다.
- 갈대 습지도 생겼습니다. 갈대 습지는 오염 물질을 쪽쪽 빨아올려 분해합니다.
- 시화호에 다시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넓고 아름다웠던 갯벌과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 '간척 사업, 함부로 하지 말아 주세요' 편지 쓰기

서해안의 많은 곳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갯벌이 사라졌다고 알려 주고 시화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갯벌과 습지에 간척 사업을 하려는 회사에게 편지를 써 보자.